

강동석 회장 WEC 사무총장 접견

남북한 에너지협력을 위한 WEC 역할 등 논의

지난 6월 4일 강동석 회장(한전사장)은 회원국 순방차 공식 방문한 G. 두셋 WEC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었다.

강동석 회장은 한국에서는 현재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대북 에너지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WEC의 역할과 견해, 그리고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에 두셋 사무총장은 유럽에서 코소보 전쟁 이후 유고의 에너지산업을 재건하는 데 알바니아 이태리 등 주변국 WEC 국내위원회가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한 바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핵문제만 선결된다면, 일본 중국 등 주변국 WEC 국내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두셋 사무총장은 현재 WEC 아시아지역 담당 부의장을 일본이 맡고 있으나, 2005년 임기 만료 후 한국에서 담당해줄 것과 2004년 9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19차 WEC 총회에 한국에서 많은 인

사들이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강동석 회장은 WEC 부의장을 수행할 적임자 물색과 시드니 총회에 국내 인사들이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은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진행 상황, 발전 산업에서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연료의 수요와 역할, 에너지기업 경영의 윤리(ethics)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면담에는 현재 WEC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류지철 박사가 배석했다.

두셋 사무총장은 또한 6월 5일 산업자원부 김기호 자원정책심의관을 예방하고 WEC 활동에 대한 지원과 2004년도 시드니 총회에 정부 인사의 참석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역할, 최적 에너지믹스, 수소경제, 청정발전기술, 교토의정서와 미국의 New Framework 제시 가능성 등 에너지부문의 제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003 WEC 연차총회 참가 안내

우크라이나 Kyiv, 9. 9~16

'시장개혁' 심포지엄 동시 개최

세계에너지회의(WEC)의 금년도 연차총회인 '2003 집행이사회'(Executive Assembly)가 오는 9월 9~16일간 우크라이나 키예프(Kyiv)에서 개최된다.

연차총회 기간 중에는 WEC의 각종 산하위원회와 지역별 회원국 회의가 열리며, 에너지부문의 시장개혁을 주제로 심포지엄도 개최된다. 그리고 집행이사회 참가자들에게는 개최국의 에너지산업 현

황과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Ukraine Energy Day' 행사 참석과 체르노빌원전 등 우크라이나의 주요 에너지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집행이사회는 WEC의 사업계획, 예산승인, 임원 선출 및 위원회 구성 등 제반 사업 및 운영에 관해 심의 의결하는 최고의 의사결정회의로서 안전 표결 시 모든 회원국어 한개의 투표권을 가지며, 매년 회원국을 돌아가면서 개최된다.

금년도 집행이사회에서는 차기(2005-07) 집행이사회 의장, 부의장 일부, 상임위원장의 선출이 예정되어 있는데, 집행이사회 차기 의장으로는 캐나다

에너지경영인 조찬간담회 개최

두셋 WEC 사무총장 초청강연

한국에너지협의회는 지난 6월 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방한 중인 G. 두셋 WEC 사무총장을 연사로 초청하여 '에너지경영인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억수 한국석유공사 사장, 정근모 호서대 총장, 박원훈 산업기술연구원 이사장, 김상갑 두산중공업 부회장 등 국내 에너지계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강동석 회장(한전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WEC는 약 100개국에 참여하는 민간 국제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에너지산업계의 입장 대변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세계 에너지업계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초청연사인 G. 두셋 사무총장을 소개하였다.

G. 두셋 사무총장은 '세계 에너지정책과 사업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약 50분간 발표를 하고 참석자들로부터 수차례의 질문을 받고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강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글로벌 쿼터 설

정 반대'라는 WEC의 2003년도 statement를 강조하고, 천연가스에 대한 과신을 버리고 균형잡힌 에너지믹스를 추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그는 원자력발전 중단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연료의 전주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보다 비용이 싼 기저부하용 대체전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WEC는 아직 그 대체전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일격을 가하고, 소규모의 스마트형 원전을 포함하여 모든 에너지옵션을 개방할 것을 주장하였다.



HydroQuebec사의 A. Caille 사장이 현재까지 단독 입후보한 상태이다.

또한 2010년도 WEC 총회의 개최지 결정도 심의하게 되는데, 지난해 2007년도 WEC 총회 유치에 실패한 캐나다가 금년도 집행이사회에서 2010년도 총회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인도가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WEC 집행이사회 참가는 한국에너지협의회 회원사 임직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회의 참가를 위한 별도의 등록비는 없다. 참가 관련 문의로는 협의회 사무국(전화 : 02-787-8508/9)으로 하면 된다.

<2003 WEC/EA 일정 및 프로그램>

일 정	주요 프로그램
9. 9(화)~1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GP, 시장개혁 등 산하위원회 • Ukraine Energy Day • Kyiv 수력발전소 방문 • 연구 및 기획 상임위원회 • Welcome Reception
9.12(금)~13(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FPS, LCA 등 산하위원회 • Kyiv 열병합발전소/급전센터 방문 • 지역별 회원국 회의 • 회원국 사무국장 회의
9.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 개최식 및 1차 회의 • '에너지시장 개혁' 심포지엄 • EA 2차 회의 • Farewell Dinner
9.15(월)~16(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방문(Technical Visit) - Chernobyl 원자력발전소 • Post-EA Tours